

종심제 과도한 입찰규제 논란

〈종합심사낙찰제〉

각종 세부심사 기준 간간해져 중소건설사 수주기회 감소 한숨
춘천시청사·속초교도소 공사 각각 30여곳 참여 그쳐 완화 시급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올해 초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평균 낙찰률이 5% 이상 오르며 적정공사비가 확보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는 축소되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지나친 가격경쟁 등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한 18건의

공사 중 평균 낙찰률이 80.8%로 2015년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에 비해 5.9%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종합심사 낙찰제 시행 이후 수주 기회가 더 어려워졌으며 입찰참가자격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배치기술자 보유 기준 등 세부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실적을 쌓기 힘들어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한

평균 입찰자는 35.7개사로 전년 대비 16.2개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발주된 춘천시청사 건립공사와 속초교도소 건립공사에는 각각 31곳과 33곳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업계는 최저가낙찰을 적용할 경우 70~100개사가 참여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평균 낙찰률이 오른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소기업의 참여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큰 혜택으로 볼 수 없다”면서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임금 기술자를 상시 보유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고 결국 대형건설사만 유리한 제도로 세부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오늘 건설협회 도회-원주국토청 상생협력 간담회

하반기 착공하는 도내 국도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전만경)은 5일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협의한다.

간담회에서는 원주청 사업 전반에

대해 현황을 소개하고 연내 신규 발주 SOC사업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원주청 신규사업에 강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원주=유학렬기자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5일 오전 11시 춘천시 동면 도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윤리위원 연석 회의를 열고 협회 및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도회장은 5일

오전 11시 도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운영위원·윤리위원 연석회의’를 주재한다.

2020년까지 도로 확장·개량 119건 착수

춘천~화천 등 포함 총사업비 9,3兆

2020년까지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 확장, 시설개량 등 총 119개 사업, 9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가 착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우선 향후 5년간 국도·국지도 시설개량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직전 5년간(2011~2015년) 계획 물량인 4조원보다 17%가량 늘어난 것이다. 도로 투자예산이 작년 9조1000억원에서 올해 8조4000억원으로 줄었지만 도로 안전예산은 더 늘려 잡았다.

또 사업규모는 작아도 시행 효과는 높은 사업들을 다수 시행하기로 했다.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나들목(IC)을 설치해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소규모 단구간을 연결해 우회구간을 단축하는 사업(울산 청량~옥동) 등이 대표적이다.

4차로 이상 국도 비율은 현재 56%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높아진다.

전국의 교통량이 많고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을 중심으로 2조6000억원 규모로 추

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주요 사업계획에는 △경기도계~인천 마전(국지도98) 도로 신설·확장 △누산IC~제천 간 확장(국도48) △화성 우정~향남 간 확장(국지도82) △춘천~화천 간 도로 건설(국도5) △원주 신림~관부 확장(국도5) △양구~원통 간 도로(국도31)의 위험구간 시설 보완 △청주~제천 4차로 도로 신설·확장 △천안 직산~부성 간 6차로 도로 확장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부안~흥덕 간 도로(국도23) 4차로 확장 △익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담양~곡성과 함평~해보 시설개량 △포산~서망 시설개량 △청량~옥동 간 도로연결(국도7) △포항~안동 도로 확장 △와룡~법전(국도35), 청도~밀양 시설개량 등이 반영됐다.

이 사업들이 2020년 이후 모두 완료되면 국도·국지도의 급곡선, 급경사 등 사고 위험구간 631km가 개선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 342km에는 도로가 신설·확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줄어 전체 사고 발생률이 현재보다 14.8% 감소하고, 지역 내 도로 투자로 고용유발 9만 8000명, 생산유발 21조3000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일반국도 계획(안) : 70개 구간

신설 및 확장 사업(23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km)	사업비(억원)
1	충청내륙1	충북	3,36	6확장	23.0	3,360
2	포항-안동2	경북	35	4확장	19.9	2,154
3	벌교-주암3	전남	15	4확장	13.3	3,535
4	청량-옥동	경남	7	4확장	1.6	697
5	청북IC-오담IC	경기	39	6확장	3.8	442
6	팔당대교-와부	경기	45	6확장	6.9	1,046
7	삼랑리-미전리	경남	58	4확장	3.1	313
8	충청내륙2	충북	3,36	6확장	13.4	2,036
9	충청내륙3	충북	3,36	6확장	7.8	1,442
10	단성-시천	경남	20	4확장	2.8	385
11	누산IC-제천	경기	48	6확장	2.0	177
12	영동-용산	충북	19	4확장	7.0	704
13	신림-관부	강원	5	4확장	13.2	864
14	포항-안동1-1	경북	31	4확장	28.5	2,702
15	동이천IC	경기	3	IC신설	1.0	471
16	사동-장평	경남	14	6확장	12.0	793
17	천안직산-부성	충남	1	6확장	2.8	475
18	남일고은-청주상당	충북	25	6확장	3.9	456
19	천안성환-평택소사	경기	1	4확장	4.2	724
20	부안-흥덕	전북	23	4확장	25.5	1,497
21	천안시계-연기 소정	충남	1	6확장	2.5	249
22	오지-동송	강원	87	4확장	3.0	248
23	무주-설천	전북	30	4확장	10.9	1,380
총계					212.1	26,150

* 필요시 설계 등 과정에서 차로수 등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

시설개량 사업(47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km)	사업비(억원)
1	용궁-개포	경북	34	4개량	3.2	289
2	서망-포산	전남	18	2개량	20.3	1,382
3	삼지현터널	경북	31	2개량	4.7	604
4	청도-밀양2	경북	25	2개량	3.2	478
5	고노-우보	경북	28	2개량	2.0	156
6	장수-장계	전북	19	2개량	6.0	335
7	홍천서석우회	강원	56	2개량	1.5	61
8	장암-임천	충남	29	2개량	2.6	91
9	청양정산-공주신풍	충남	39	2개량	12.8	495
10	보령성주우회	충남	40	2개량	5.2	498
11	정선-북면	강원	42	2개량	3.7	495
12	고창해리-고창부안	전북	22	2개량	13.6	472
13	익령-합천	경남	20	2개량	15.0	360
14	군위-의성	경북	28	2개량	14.8	488
15	군북-기야	경남	79	2개량	8.3	558
16	춘천-화천1,2	강원	5	2+1차로	19.4	3,703
17	정선3교	강원	42	2개량	0.8	287
18	담양-곡성	전남	13	2개량	3.8	136
19	김천-구미	경북	59	2개량	16.5	495
20	매전-건천	경북	20	2개량	17.7	595
21	구미-군위IC	경북	67	2개량	9.9	419
22	신장-북용	전남	2,77	2개량	10.6	462
23	소양-진안	전북	26	4개량	2.0	205
24	동강-학교	전남	23	2개량	7.2	413
25	안흥-방림	강원	42	2개량	24.5	2,199
26	와룡-법전1,2,3	경북	35	2개량	10.4	1,263
27	충청내륙4	충북	38	4개량	13.2	673
28	경주 양남-감포	경북	31	2개량	3.5	590
29	임실-장수	전북	13	2개량	22.2	1,624
30	북영천IC-선천리	경북	35	2개량	3.8	131
31	연천-신탄	경기	3	2개량	6.9	471
32	산청우회	경남	59	2개량	0.9	156
33	성수-진안3	전북	30	2개량	8.4	291
34	지촌-사내	강원	56	2개량	1.2	308
35	양구-원통	강원	31	2개량	12.0	713
36	화순동면-순천주암	전남	22	2개량	9.5	667
37	남일-보은1	충북	25	2개량	11.9	894
38	화산-문주	전북	17	2개량	3.5	181
39	암해-송공	전남	2	2개량	7.4	324
40	함평-해보	전남	24	2개량	10.0	453
41	연곡-현북	강원	59	2개량	14.2	2,337
42	포천이동-월원서면	경기	47	2개량	5.7	322
43	화순동면-송광봉산	전남	15	2개량	7.4	1,126
44	입장-진천	충남	34	2개량	5.1	1,218
45	예천-지보	경북	28	2개량	9.3	362
46	남일-금산	충남	13	2개량	7.5	269
47	창녕-고암	경남	20	2개량	8.2	693
총계					411.5	30,740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안) : 6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km)	사업비(억원)
1	연산-두마	충남	계룡시	4신설	8.5	2,120
2	도화-송학	충북	제천시	2신설	0.8	214
3	봉정-방문	충남	공주시	2신설	3.8	950
4	서수-평장	전북	익산시	4신설	17.7	3,652
5	남산-하양	경북	경산시	4신설	9.8	1,470
6	정읍시농소동-하모동	전북	정읍시	4신설	2.3	444
총계					42.9	8,850

‘中企·지역경제 살리기’
정부, 내년 65.3兆 투입

정부가 내년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데 65조3425억원을 쏟아붓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65조3425억원)의 87%에 해당하는 56조625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지방교부세를 지난해 36조1324억원에서 40조6357억원으로 늘려 일차적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지역(560억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1302억원)에 대한 맞춤형 지역발전 지원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아울러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등 접경권 발전지원사업(289억원)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 완공하고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15조533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데 8조1133억원을 투입하되, 벤처·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2조3752억원을 배정했다. 채희찬기자 chc@

20兆대 붕괴 ‘5년來 최저’... SOC는 18.8兆, ‘2兆’ 깎였다

(올해 예산 대비)

올해 예산보다 9.8% 감소
도로철도, 10% 인력 ‘깎임’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19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2년(19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로 20조원대가 무너졌다.

기금을 포함한 국토교통 예산안 총 지출규모는 40조9522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출이 늘면서 감소폭은 0.7%로 줄었다.

국토교통 예산 감소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부문이 올해(20조8000억원)보다 2조원가량 줄어든 18조8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규모가 큰 도로와 철도가 10% 안팎으로 줄었다. 도로는 7조3854억원, 철도 도시철도는 6조5804억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8949억원(10.8%), 6609억원(8.8%) 감소했다. 올해 지역 및 도시 예산(7492억원)과 맞먹는 사업비가 통째로 사라진 셈

이다. 도로는 상주-영덕(2239억원) 등 54건이 준공(8051억원)되면서 감소폭이 컸다. 철도 역시 원주-강릉 노선이 내년이 개통되면서 사업예산이 8807억원에서 3040억원으로 급감했다.

수자원(1조8612억원)과 항공·공항(1413억원), 산업단지(4806억원)도 13~23%씩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 수자원의 경우 한탄강댐(1607억원), 문문댐(264억원) 준공 영향이 컸다. 반면 물류 등 기타(1조3279억원)와 지역 및 도시(7517억원) 예산은 소폭 늘었다.

내년 신규 사업은 올해(61건, 1530억원)와 비슷하다. 1000억원이 반영된 인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6차로, 71.7km)을 비롯해 총 60개 사업(1845억원)이 내년이 새로 추진된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수저발 고속철도 성남-여주 복선철도 등 급격한 사업이 준공되는 반면 춘천-속초 고속철, 인천-수원발 KTX 등 대기 프로젝트는 길들이 단계여서 내년 전체 예산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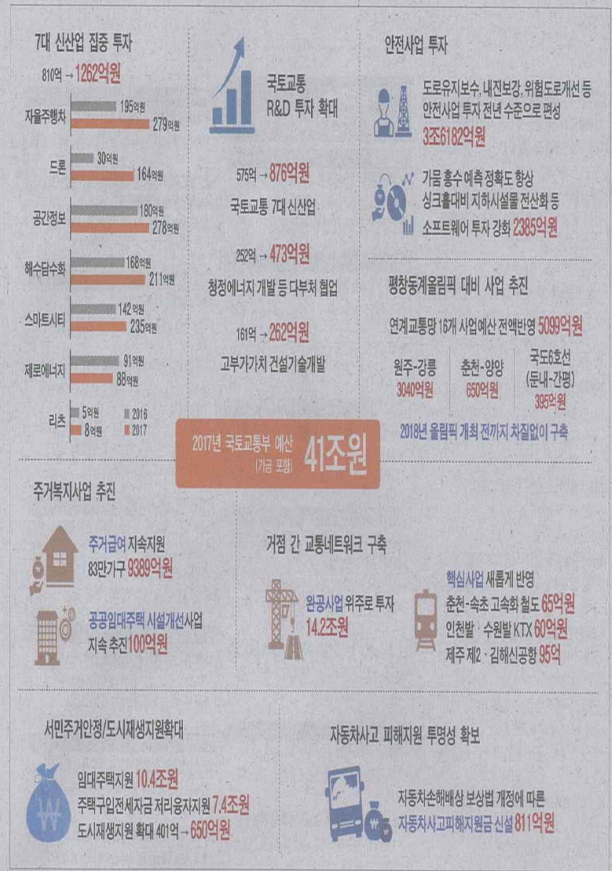
춘천-속초 고속철 설계비 65억원 우선 편성

대형 사업 내년의 신규 예산사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이다. 춘천에서 하천양구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0.8km에 달하는 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8년간 2조631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만차사업 등을 검토했지만 복선을 단선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비를 낮춰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내년 예산은 설계비 등 65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안성-구리) 착공을 위한 보상비 1000억원도 반영됐다. 성남-구리 구간은 올 연말에 착공하고, 안성-성남 구간은 내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말 착공한다.

제주 제2공항과 김해공항 확장(신공항) 사업에는 공항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95억원이 배정돼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내후년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16개 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안에 포함됐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30.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국토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 총 5099억원이다.



건협 강원도회, 오늘 운영위원·윤리위원 연석회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5일 도회 회의실에서 오인철 도회 회장(사진) 주재

로 ‘운영위원·윤리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당면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